



KIA 日 전훈 캠프를 가다

미야자키=박진표 기자



“중범이가 확 달라졌다”

모든 훈련 술선수범...정신력도 강해 코치들 “전성기 기량 되찾아” 극찬

‘바람의 아들’이중범이 달라졌다. 지난 시즌 93년 데뷔 이래 최악의 성적(타율 0.242)을 낸 이중범은 일본 미야자키에 차려진 스프링캠프에서 명예회복의 칼날을 갈고 있다.

운동선수로서 적지 않은 나이인 37세로 접어든 이중범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타격감 등 모든 것이 최상으로 돌아왔다. 올 시즌은 3할 타율에 도루 30개가 목표”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2006 시즌이 끝난 직후부터 실전훈련이 시작되는 스프링캠프에 맞춰 기초체력을 키워왔던 게 드디어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서정환 감독을 비롯한 KIA코칭스태프들도 “이중범이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보이고 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박승호 수석코치와 이진열 타격코치, 김봉근 투수코치, 백인호 수비코치의 입을 통해 지난해와 달라진 이중범을 분석해 봤다.

▲박승호 수석코치 = 요즘 (이)중범이 만 보면 일단 웃음도 절로 난다. 선배로서 주장으로서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 팀 분위기도 무척 좋아졌다. 술선수범에서 특수(특별수비), 특타(특별타격)를 자원하는 등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렬한 눈빛에서 그 어느 해 보다도 강해진 정신력도 느껴진다. 타격은 물론 수비 감각도 전성기 시절을 보

는 듯 하다. ▲백인호 수비코치 = ‘스피드’를 완전히 회복했다. 수비적인 측면에선 어깨의 경우 정상 컨디션의 60%까지 끌어올렸고, 주루 플레이는 지난해와 달리 빠른 스피드를 보이고 있다. 외야 포지션에서 공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몸이 많이 가벼워 졌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 상태만으로도 주전 외야수로 손색이 없다. 코치가 아닌 선배로서 (이)중범의 모습이 보기 좋고,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믿는다.

▲이진열 타격코치 = 지난해엔 모든 기량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맞추는 바람에 본 시즌에선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타자라도 체력이 떨어지면 배트 스피드 등 모든 기량이 감소돼 타격감을 잃게 된다.

중범이는 특히나 상·하체가 따로 놀면서 오른쪽 어깨가 처지고, 방향이 헤드도 크게 돌아서 나오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배트가 나가는 시간이 길어져 공을 맞히는 타점을 잡기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은 스윙케도도 지난해와는 달리 간결하게 잘려서 나온다. 스윙케도가 풀다보니 당연히 배트 스피드도 빨라지고, 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선구안도 좋아졌다.

▲김봉근 투수코치 = 투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이중범은 상대하기 쉬운



선수였다. 무너진 타격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중범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중범은 ‘거포’가 아니라 안타를 잘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투수들은 이중범의 컨디션이 저조할때 맞아도 안타고, 도망가는 피칭을 해도 볼넷으로 안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결국 투수들은 2006년도엔 이중범에게 정면으로 승부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지난 시즌 이중범의 볼넷 출루율이 저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지켜본 이중범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타석에서면 여유로운 모습이다.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2009년부터 전면 드래프트

KBO “올해·내년엔 우선지명 1명으로 감축”

현대 유니콘스 매각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프로야구가 신인선수 선발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행 연고 구단이 2명씩 우선 지명하는 방식을 올해와 내년에는 1명씩으로 줄인 뒤 2009년부터는 전면 드래프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82년 프로야구 출범 당시부터 실시됐던 연고지별 우선 지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출신 학교에 관계없이 성적 역순에 따른 드래프트로 8개 구단 전역 관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연고 지역에 우수 선수가 많은 KIA

타이거즈 등이 반대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2시간30분여 걸친 토론 끝에 표결없이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 나선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각 구단별로 입장이 달라 처음에는 의견을 모으기 힘들었지만 진지한 토론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전면 드래프트를 실시하면 구단별로 전력균형을 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하일성 총장은 전면드래프트 실시로 각 구단의 아마추어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KBO가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

혔다. 또 이사회는 전면드래프트 시행과 함께 구단별 연고권에 대해서도 규약에 명시된 도시연고제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현대 유니콘스 구계방안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사회는 “올 시즌은 무조건 8개 구단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은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방안이나 자금조달에 대해서 해답을 구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현대 선수단의 첫 급여일인 2월 25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1999년 이후 해외로 진출해 5년이 경과한 선수 중 국내 복귀를 원할 경우 올해에 한해 2년간 복귀 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조건없이 입단을 허용키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달 31일 오후 중국 지린성 베이다후(北大湖) 스키리조트에서 펼쳐진 동계아시안게임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서 한국의 오재은이 질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규혁 빙속 1,500m 2연패

문준 1,500m ‘동’ 오재은 대회전 ‘은’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말형’ 이규혁(29·서울시청)이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남자 1,500m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이규혁(왼쪽)과 문준이 시상대에서 웃고 있다.

했다.

한편 앞서 열린 여자 1,500m에서는 이주연(20·한국체대)이 2분01초60으로 중국의 왕웨이(2분00초49)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3,000m에서 아시아신기록으로 대회 1호 금메달을 차지했던 왕웨이는 2관왕에 올랐다.

또 오재은(24·국민대)은 지린성 베이다후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서 1, 2차시기 합계 2분09초64로 일본의 기요사카 에미코(2분08초92)에 0.72초 뒤져 은메달을 따냈으며 김선주(22·중앙대)는 2분11초80으로 3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해변가에서 전력 질주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 캠프가 한창인 KIA 선수단이 지난달 31일 오후쿠라가하라구장 뒷 편에 위치한 모래 해변에서 러닝 훈련을 하고 있다.

이승엽 “당분간 개인훈련에 주력”

대구 사투리를 쓰는 이승엽의 본적은 강원군이다. 이승엽의 아버지 이춘광(65)씨는 강원군 신전면 용월리 노해마을에서 태어났고, 지난 1월 초 고인이 된 어머니(고 김미자씨)는 해남 출신이다.

하지만 대구 2군사령부에서 군 생활을 하던 아버지 이씨가 지난 67년 제대 후 대구에 동지를 트는 바람에 이승엽은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도 이승엽은 자신의 뿌리가 전라도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승엽과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생활을 함께 한 김지훈 KIA 코치(34)는 “(이)승엽이가 자신은 전라도의 피가 흘러 그

日도착 본사 단독 취재

런지 승부근성이 뛰어나다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KIA 코치로 부임한 뒤부터 가끔 전화통화를 하면 내 고향을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며 이승엽의 전라도 사랑을 전했다.

지난해에는 이승엽의 일본 진출 2주년 기념 사인볼 1천300개를 고향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훈훈한 고향 사랑도 실천하고 있다. 이에 강원군도 ‘2006년 자랑스런 강원인’으로 이씨를 선정했다.

‘아시아의 홈런왕’이승엽이 지난날 31

일 오후 1시 팀 동료인 용병 제레미 파웰(투수), 루이스 곤살레스, 데이먼 홀리스(이상 야수)와 함께 스프링 캠프 합류를 위해 미야자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검정색 줄무늬 양복에 검정 넥타이의 깔끔한 정장을 한 이승엽은 곧바로 대기 중인 구단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 여장을 풀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승엽은 “컨디션도 날씨도 좋다. 모든 게 잘될 것 같다”면서 “오후부터 가벼운 웨이트트레이닝을 시작으로 배팅훈련 등 개인 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했다.

/lucky@kwangju.co.kr